

온라인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중심으로 aT, '바로정보' 서비스 개편

온라인 소통 창구 '바로모임' 통해 회원간 정보 공유·대화 가능
이용자들 취향·니즈·다양성 등 반영 콘텐츠 더 확장, 정기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전곡 로컬푸드 및 농식품 직거래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바로정보(www.baroinfo.com)' 홈페이지 새 단장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신규 서비스를 지난 9일부터 선보였다.

특히, 직거래 사업자 또는 생산자들이 경영, 홍보 등 현장 고민거리를 수시로 자문할 수 있는 온라인 전문가 상담서비스 '바로상담'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무료 자문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이 제한적인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 소통 창구인 '바로모임' 서비스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회원간 커뮤니티를 만들고 실제

간 정보 공유와 대화가 가능토록 개편했다.

그 외에도 이용자들의 취향, 니즈, 다양성 등을 반영해 콘텐츠를 더욱 확장, 정기 제공한다. 직거래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유용한 국내·외 로컬푸드 이슈, 레시피, 이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전문가를 통해 제작된 고품질의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이용 가능하다.

aT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소통과 공유"의 키워드를 주요점으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능을 강화했으며, 향후 온라인 설명회 등 정책 참여자들과의 소통도 바

로모임'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T는 바로정보 신규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이달 18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며, 난민의 로컬푸드 직매장 및 장터에 대한 칭찬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농촌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바로정보는 로컬푸드나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된 정책 참여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도 좋은 정책을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라며 "이번에 선보이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10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에서 연구원들이 11일 열리는 평가회에 앞서 칼라 새 품종의 생육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봄의 시작 알리는 '칼라', 국내 기술로 '활짝'

농진청, '코튼캔디' 등 새 품종·기존 인기 품종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봄을 맞아 소비시장과 농가 기호를 반영해 육성한 '칼라' 새 품종과 기존 보급 중 가운데 인기를 얻고 있는 품종을 10일 소개했다.

'칼라'는 '환희', '열정'이라는 꽃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결혼식에 즐겨 사용하는 꽃이다. 특히 하얀색 칼라는 깨끗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겨 공간을 식물로 장식하는 '식물 인테리어'(플랜테리어) 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흰색 칼라는 꽃 모양이 우수하고 병에 강하며, 품종마다 피는 시기가 달라 재배하기도 유리하다. 새로 개발한 '코튼캔디'는 꽃 모양이 둥글고 깔끔하며 칼라 재배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무름병에 중간 정도 저항성을 지닌 품종이다. 2020년 기호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1점을 받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우수 계통인 '원고 C4-21호'은 꽃이 늦게 피는(만생) 품종으로, 식물 세력(초세)이 강하고 꽃잎 포개짐이 우수해 꽃 모양이 아름답다. 기존 품종 가운데 꽃 모양이 아름다운 '스왑'은 꽃을 피우는 데 걸리는 시간(개화소요일)이 짧아 일찍 출하할 수 있고 꽃수가 많다. 동근 화포를 지니고 있으며 기호도 평가에서 4년 동안(2017~2020년) 4.0점 이상 좋은 평가를 받아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육성한 '물방울'은 꾸준히 사랑받는 중생 품종이다. 무름병에 강하며 특히

꽃 모양이 우아하고 아름다워 농가 만족도가 높다.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흰색 칼라 10품종, 유색 칼라 2품종을 육성했다.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15년 9%에서 2020년 15.6%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구진은 품종 개발 단계에서 무름병 저항성과 지구(새끼구) 증식률을 조사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국내 재배 환경 적응력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흰색뿐 아니라 국내 품종이 부족한 유색 품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칼라는 고급 꽃으로 인식돼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인정받는 만큼 무름병에 강한 우수 품종을 개발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공과금 간편납부 서비스 출시 기념 '캐시백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에서 '지로납부 카메라 촬영' 서비스를 선보이고, 이를 기념해 3월의 지로 납부액 '돌려드려요!' 이벤트를 4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로납부 카메라 촬영'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OCR(광학적 문자 판독장치) 기술이 적용돼 고객이 직접 지로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로 용지를 촬영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올원뱅크에서 OCR지로 촬영 납부를 완료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지로납부액 전액(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을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올해의 스타소상공인 모여라'

도·경진원, 참여업체 모집
1년 이상 사업 영위자 대상
내달 16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2021 전라북도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2012년 전라북도에서 국내 최초로 시작한 히트상품이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도민평가단이 직접 투표로 뽑아 선정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대표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9년간 55개사가 선정되어 총 4억7,000만원의 경영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경영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홍보영상 제작 및 TV 송출 지원, 인증현관 제작 및 설치 등의 마케팅 종합 지원으로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된 업체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대면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업체가 본선에 진출할 예정이다. 최종 3차 TV 공개모디션에서 전문평가단과 도민 청중평가단의 Two-Track 심사를 통해 최종 스타 소상공인이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R&D, 마케팅, 해외진출, 시설 개보수 등의 용도로 활용할 가능한 경영지원금이 차등지급 된다. 대상은 1개 업체에 2,500만원, 최우수상 2업체에 각각 1,000만원씩 지급된다. 그밖에 TV 방송홍보, 3,000만원 한도의 저리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4월 16일까지며 모집 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아이디어를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영급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국민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제안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259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수상 2편(각 50만 원), 동상 2편(각 30만원) 총 4편을 선정했다. 수상 수상작은 ▲추납보 협로 납부제도 동영상 제작·안내 ▲고객센터-국민 제안'에 게시하거나 전화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이며, 동상은 ▲60세 도달 사업장 가입자에 대

해외인증등록 참여업체 모집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은 우리 농식품의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2021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인증에 소요되는 심사비, 컨설팅비, 교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업체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성장성을 갖춘 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보유 업체에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수출준비도가 높은 수출예정업체에게 30%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정보제공, 기술지원, 분석지원, 인력양성 등의 지원사업도 수행 중이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 '고성능 SUV' 코나 N 디자인 티저 공개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N 라인업을 SUV로 확대한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 6월 출시한 국내 최초의 고성능 모델 벨로스터 N에 이어 N 라인업의 계보를 이어갈 두 번째 모델이자 최초의 고성능 SUV, 코나 N의 디자인 티저를 10일(수) 공개했다.

코나 N은 작년 9월 출시한 '더 뉴 코나'의 고성능 모델로 현대차의 디자인 정체성 위에 N 브랜드 특유의 공격적이고 대담함을 잘 녹여내 강력한 존재감을 갖춰낸 것이 특징이다.

코나 N의 전면부는 N 로고가 부착된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N 전용 범퍼가 강인하고 스포티한 인상을 구축한다. 이어 N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레드 색상의 포인트 컬러가 범퍼 하단 프린트 스텔러부터 사이드 스커트를 지

나 리어 범퍼까지 두루 적용돼 N 특유의 캐릭터를 잘 살려냈다.

측면부는 바디 컬러가 적용된 클레딩과 함께 N 전용 퍼포먼스 휠이 적용돼 한층 또렷해진 존재감을 드러냈다.

후면부는 대규격 배기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울러 공기역학을 고려해 설계된 전용 스포일러와 대형 디퓨저가 장쾌도 고성능의 감성을 한껏 돋우며, 스포일러 중앙부에는 N 모델만의 특징 중 하나인 삼각형 보조 제동등이 적용돼 고성능 N의 정체성을 잇는다.

한편, 현대차는 코나 N을 시작으로 올해 중 아반떼 N과 투싼 N라인을 순차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고성능 N브랜드의 상품 라인업을 더욱 다채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2020 우수국민 제안', 업무에 활용

국민연금, 4편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해 접수한 '국민 제안' 중 공단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영급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국민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제안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259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수상 2편(각 50만 원), 동상 2편(각 30만원) 총 4편을 선정했다. 수상 수상작은 ▲추납보 협로 납부제도 동영상 제작·안내 ▲고객센터-국민 제안'에 게시하거나 전화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이며, 동상은 ▲60세 도달 사업장 가입자에 대

한 안내문구 개선 ▲홈페이지에서 임의 가입시 자동이체 신청방법 개선이 채택됐다.

공단은 선정된 우수 제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 제안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민연금 서비스와 제도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소통과 참여-국민 제안' 혹은 모바일앱 내걸에 국민연금 협로 납부제도 동영상 제작·안내 ▲고객센터-국민 제안'에 게시하거나 전화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이며, 동상은 ▲60세 도달 사업장 가입자에 대

중기협동조합 전문 협동화자금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의 원자재 공동구매 자금 조달에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중인 경우 중앙회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다.

조진형 중소기업협동조합본부장은 "공공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협동화자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협업조직의 결실체인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민간과 지적재산권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앞장

LX, 측량SW 무상 지원 등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경철·LX)가 민간과 협업을 확대한 지적재산권 사업으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지난해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LX는 올해 88개(118팀) 민간업체와 파트너가 돼 지적재산권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LX는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측량소프트웨어(약 24억원)를 무상 제공하고, 지역본부별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헬프데스크도 별도 설치·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체계도 갖췄다.

이에 따라 약 7%에 그쳤던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율이 '25년까지 약 50% 이상으로 확대되어 민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X는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차세대와 함께 지적재산권 측량 등 사



서부산림청, 남해안 산림에 기상관측망 집중 설치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산악기상관측망 시설을 태풍과 강수가 주로 시작되는 남해안지역 산림에 집중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악기상관측망은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산사태 위험예보를 신속하게 발령할 수 있는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기상자료를 수집하는 시설이다.

측정된 기상자료는 산사태위험예측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전달되어 산사태 예·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예보 및 주민대피 등의 사전조치를 유도하는데 활용된다.

서부산림청이 관할하는 전남·북, 경남 서부지역에는 57개소가 설치됐으며 올해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